

동심(童心)이 반영된 민요의 세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전문위원·양 영 자

놀이와 노래

제주민요에 ‘나 놀래랑 산 넘어 가라 나 놀래랑 물 넘어 가라’ 하는 노랫말이 관용적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놀래’는 ‘놀다’에서 파생한 말이다. 한바탕 판을 벌이는 것을 놀이(노리)라고 하고, 가락으로 소리를 내는 것을 놀래(놀애, 노래)라고 하는 것이다.

놀이는 자발적으로 즐거움과 흥겨움을 갖는 행위로, 생존활동의 일을 제외한 신체적 정신적 모든 활동을 이른다. 일정한 방법에 의해 즐거움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 놀이, 즉 유희이다. 그리고 놀이의 진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따르는 노래 또는 놀이에다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를 놀이소리, 즉 유희요라 한다.

노동요가 작업의 능률을 올리고 일의 고됨을 덜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라면, 유희요는 유희(놀이)를 질서있게 진행시키며 놀이 자체를 흥겹게 하기 위하여, 또는 승부에 이기기 위하여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놀이는 어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하는데,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도 넓게는 유희요

에 포함된다. 노래 전승의 주체가 어린 아이이므로 ‘아동유희요’로 분류할 수 있다. 아이들의 유희요는 놀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라든가, 심심함을 달랠 다든가 하는 목적의식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로 아이들의 놀이판에서 형성된다. 아동유희요인 동요는 어린이들에 의해 놀이와 노래가 동시에 연행되는 ‘놀이소리’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전승되고 있는 대부분의 동요는 유희적 성격을 지닌다. 이들 유희요 중 몇 유형만 소개해보기로 한다.



[사진 1] 한경면 금동리 노래공동체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노래

과거에 아이들 사이에서 불렀던 노래는 자연을 무대로 하는 유희요가 주를 이루었다. 동물, 식물, 천체 등을 놀이의 대상으로 삼아 놀면서 부르는 노래는 유희요의 가장 기본적인 노래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의 노래에 등장하는 동물은 꿩, 까마귀, 솔개, 기러기, 까치, 파랑새 등 새 종류, 잠자리, 개똥벌레, 거미, 방아깨비, 벼룩, 매미, 도롱이, 달팽이, 풍뎡이 등 곤충류, 사슴 등의 짐승류, 뱀, 개구리, 두꺼비, 지렁이 등의 파충류나 양서류, 게, 생선, 조개 등의 어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특히 새나 곤충에 대한 노래가 많다.

1. 망명이춤 추라
정의대정 굿보레가저
망명이춤 추라
정의대정 굿보러가저

- 남원읍 신흥2리

메뚜기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곤충으로 일상의 놀이 소재였다. 1은 제주에서는 ‘말축’으로 알려진 메뚜기를 잡고 놀리면서 불렀던 노래이다. 메뚜기의 다리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춤추는 형상을 하게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사람의 손등에 도톰하게 솟아오른 사마귀 또한 말축(만축)이라 했다. 아이들은 손등의 말축을 잘라 먹으라고 곤충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곤충을 대상으로 주술을 부르기도 하였다.

2. 주열재열 내려오라
개똥범벅 허여주마
쉐똥범벅 허여주마

- 한경면 청수리

2는 매미를 잡을 때 반복해서 부르면서 매미가 나무에서 내려와 잡히기를 바라면서 부른 노래이다. 매미가 개똥과 쉼똥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지, 개똥과 쉼똥의 무더기가 범벅을 연상시켰는지 모르지만 이 노래를 반복적으로 부르면 진짜 매미가 나무에서 내려온다고 믿었다.

3. 흘레 말레
흘레 말레
암커랑 부뜨라
흘레 말레

- 한경면 낙천리

3은 잠자리를 대나무 가지에 실로 묶고 빙빙 돌리면서 암컷과 수컷을 맞추는 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이다. 철없던 어린 시절에는 부끄러움도 모른 채 즐겼을 짓곳은 장난이건만, 백 살을 내다보는 나이에 다시 부르려니 부끄럽고 쑥스럽게 느껴지곤 해서 얼굴을 붉히거나 옆 사람 눈치를 보게 한다.

동물이나 곤충뿐만 아니라 풀, 보리피리, 쇠비름 등 식물을 갖고 놀면서 부른 노래들도 꽤 있었다.

옛날 아이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여 놀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지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과 사물은 친구가 될 수 있었고, 자연과 사람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또 다른 인격체로 서로 공존하며 지낼 수가 있었다. 자연과 친구가 되는 시간과 기회를 거세당한 요즘의 아이들이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천체를 대상으로 한 노래

해, 달, 별 등 우주의 천체는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다. 더욱이 농경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지침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들은 승배의 대상이기도 하고 갖은 신화와 전설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아이들의 노래에도 천체 기상과 관련된 해, 달, 별, 비, 바람, 눈, 더위 등이 많이 등장한다.

4. 비야비야 오지말라
장통밧디 물들엄져
비야비야 오지말라
핑씹에 물들엄져

- 한경면 산양리

친구들과 먹이라도 감으면서 한창 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낙비라도 오면 4와 같이 노래한다. 혹시 마당에 널어둔 곡식이라도 있으면 큰 걱정인데, 아이들의 걱정은 과장적이고 해학적이다. 초상 난 집의 매장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들판에 보금자리를 틀 썰의 신체가 젖는 것을 걱정하는 오지랴 넓은 심성으로 표출된다.

자연은 곧잘 놀이로 연결되기도 했다.

5. 벨 하나 공공 들 하나 공공
벨 둘 공공 들 둘 공공
벨 셋 공공 들 셋 공공
벨 넷 공공 들 넷 공공
벨 다섯 공공 들 다섯 공공
벨 여섯 공공 들 여섯 공공
벨 일곱 공공 들 일곱 공공

제주의문화

벨 요담 공공 들 요담 공공

벨 아홉 공공 들 아홉 공공

벨 열 공공 들 열 공공

- 표선면 성읍리 이창순(여 · 1937년생)

여름밤에 아이들이 동네 어귀에 모여 하늘에 뜬 달과 별을 헤아리며 한 쪽 발을 땅에 딛고 손을 세면서 5의 노래를 부른다. 손을 계속 세 나가면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하는 겨루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1980년대쯤 한창 유행했던 놀이기구 '킹콩'은 이러한 전래동요를 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문화현상은 모두 놀이를 본떠서 만들어진다고 볼 때, 문화 콘텐츠의 발굴이 문화산업의 기초가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함께 어울려 놀면서 부른 노래

옛날 아이들은 예닐곱 살만 되면 서로 어울려 놀이를 하였다. 서너 명만 모이면 냇가나 들판, 동네 어귀 어디에서든 놀이판이 형성되었다.

6. 물할애비 털어지라
장할애비 털어지라
얼다춤다 간경장
말들렷다 삼매장
코풀엇다 흥덕장

- 남원읍 신흥2리

냇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몸이 추워지면 물 밖으로 나와서 몸을 말리는데, 이때 몸의 물기를 털어내며 6과 같이 노래한다. 단순히 물기만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음상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언어유희를 즐기고 있다.

전승되고 있는 아동유희요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기본적인 놀이노래로 <다리뽑기하는소리>를 들 수 있다. 제주에서는 <흔 다리인다리> 통하는 노래이다.

7. 흔 다리 인다리
개청 대청
원님 스설
구월 나월
행경 밧디
버드 낭에
알롱우이
지동에 척!

- 남원읍 신흥2리 김갑생(여 · 1926년생)

양편으로 마주보며 앉아 죽 다리를 뺀고 한 발을 상대의 가랑이 사이에 위치하게 한 후 <흔다리 인다리>를 불러 순서를 정하거나, 놀이의 결과 벌칙을 주면서 그 자체를 즐기는 놀이이다. 마지막 부분 '지둥에 척!' 은 강하게 부르면서 다리를 두드리는데, 이때 다리를 오므린다. 계속 세 나가다가 두 다리를 모두 오므린 사람이 승자가 되고 맨 마지막까지 다리를 오므리지 못한 사람은 벌칙을 받거나 술래가 된다.



[사진 2] 남원읍 신흥2리 할머니들의 '흔다리인다리'

이 노래는 전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사설은 조금씩 다르다. 이 놀이를 할 때는 백 살을 바라보는 할머니들도 모두 동심으로 돌아간다. 이 노래가 얼마나 재미있고 신명나게 행해졌는지 짐작하게 한다. 가위바위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가위바위보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유희요이며 동요이다.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모이면 줄넘기와 같은 단체 놀이가 진행된다.

8. 살레안에 중이가
한 마리 들어왔져
두 마리 들어왔져
세 마리 들어왔져
네 마리 들어왔져
살레안에 중이가
한 마리 나갓다
두 마리 나갓다
세 마리 나갓다
네 마리 나갓다



[사진 3] 성읍리 강아름 외 '베펠락'

- 성읍리 강아름(여 · 1995년생) 외

이 노래는 사람을 종이(쥐)에 빗대어 해학적으로 노래했는데, <꼬마야 꼬마야>의 전신이라고 할 만하다. 제주에서는 줄넘기를 가리켜 '베펠락' 이라고 한다. 베펠락은 혼자서 하기도 하고, 두 사람이 마주보며 뛰기도 하고, 여럿이 한꺼번에 베(밧줄) 안으로 들어가 호흡을 맞추며 뛰기도 한다.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각 유형에 따라 노래도 다르게 부른다.

제주의문화

아이들의 문화는 놀이에서 만들어진다. 놀이에는 아이들의 관심이 반영되고, 놀이집단의 관심은 노래를 통해 표출된다. 놀이는 단순히 즐기는 것에서 나아가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참가를 강요하거나 구속하지 않고도,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열중하여 즐거움을 얻는 것이 놀이이며, 이 놀이야말로 아이들을 인간답게 사회화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자연이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오로지 휴대폰이나 컴퓨터와만 놀이하는 요즘 세대들이 스스로 노래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결과이다. 아이들의 놀이를 되찾아주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의 메마른 심성을 회복하고 건전한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사진 4] 꼬마야 꼬마야를 부르며 베벨락하는 아이들

